

참사랑의 불을 지피는 회초리를 부탁해!

❁ 싸리나무 이야기(2)

세월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박 여사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잘 만한 집을 찾아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남자는 장사 차 출타하고 여자 혼자만 있는 집이었다. 여인은 반갑게 여사를 방으로 맞아들여 저녁상을 차려 와서 밥을 먹는 여사 옆에 앉아 교태를 부리면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상을 물리자 건넌방에 여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여러 번하고 방문을 닫았다. 여사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거만히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속옷 차림의 주인 여자가 여사의 이부자리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 아닌가. 여사는 몇 달 전 싸리 회초리로 맞은 생각이 불현듯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주인 여자에게 호령했다.

“납편 있는 유부녀가 이게 무슨 짓이요! 요물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소. 댁 밖으로 나가 싸리 회초리를 꺾어 오시오.”

여인은 여사의 위엄에 기가 질려 시키는 대로 회초리를 만들어 왔다. 여사는 여인의 종아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그때였다. 갑자기 다락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손에 시퍼런 도끼를 들고 방으로 뛰어 내려와서, 방바닥에 엎드려 여사에게 말하길,

“손님, 저는 저 년의 남편입니다. 저 년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확인해서 이 도끼로 요절을 내려고 며칠째 다락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하마터면 귀한 분을 해칠 뻔했습니다.”

한 여인의 회초리가 어사 박문수 목숨 구해 30·50자루 회초리 수만금 문장력은 늘지만 오늘날은 어른도 애도 없고 회초리도 없어



박 여사는 온 몸이 오싹했다. 전에 싸리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혼계를 받지 않았던들 오늘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산중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더욱 정하게 고마웠다. 그 여인은 박 여사의 먼 조상이며,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람으로 현신해 교훈을 준 것이라고 한다.

싸리나무 회초리가 그림다.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세상이니 더욱 그림다. 막장드라마는 계속 막 장은 파고, 회초리는 설 곳이 없다. 온갖 물건을 다 파는 백화점, 다이소에도 회초리는 없다. 엄마, 선생님, 회초리를 부탁해요.

‘삼십절초(三十折 초) 오십절초(五十折 초)의 문장’이란 말이 있다. 이는 과거에 급제한 뛰어난 문장을 칭송하여 이르는데 30자루, 50자루의 회초리가 될 일 만큼 어려움을 견뎌낸 후에 얻어진 훌륭한 글이란 뜻이다.

김홍도의 ‘서당도’에는 회초리로 학동의 종아리를

친 훈장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있다. 아이는 한손으로 눈물을 흘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님을 다시 묶고 있다. 서안 옆에 회초리가 보이니 아마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나 보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 다음 차례에 나도 맞으면 어쩌나 하는 은근한 걱정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 킁킁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실감난다.

“너 이놈,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해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것인지 웃고 있는지, 훈장님의 묘한 표정도 재미있다. 서당에서 글공부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낸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다. 배경은 일제 생략해버리고 사선구도의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과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김홍도 특유의 필치를 엿볼 수 있다. 비록 스승으로부터 매를 맞은 제자와 그 동료들이

지만 불만에 찬 내면의 반발이나 영악하게 계산된 표정관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맑고 훈훈한 정이 느껴진다. 이는 스승의 제자 사랑과 제자의 스승에 대한 믿음에 가식 없는 참사랑이 교감되고 있기에 그러지 않을까?

옛날 부모들은 아이를 서당에 맡기면 봄 가을에 싸리나무 한 짐을 지게로 저 훈장덕에 갖다 드렸다. 싸리 회초리로 자식의 종아리를 때려 달라는 부탁이었다. 물론 그 많은 싸리나무를 다 맺감으로 쓸 수 없어 빗자루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서당에서 나오는 싸리 빗자루는 값을 절대 깎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하면서 각계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사라져야 할 폭력’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결국 교실 수업의 파행을 초

래 하게 된다는 우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싸리나무는 낙엽이 지는 활엽관목으로서 높이는 1~2m 정도다. 가지는 탄력 있게 휘며, 잎은 3출 겹 잎으로 마주나며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작은 잎은 둥근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매끈하며 길이는 2~4cm 정도이다. 꽃은 늦여름에 피는데, 홍자색의 작은 나비모양의 꽃이 총상꽃차례(꽃대에 꽃자루가 있는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여 끝까지 핀다. 꼬리꽃, 투구꽃, 싸리나무, 아카시아의 꽃 따위가 있다.)를 이루면서 달린다. 열매는 납작한 원형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1개의 씨가 만들어진다. 주로 산지에 많으며 한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싸리나무 씨를 먹고 백 살이 넘도록 살았다거나 싸리나무를 오래 먹었다니 힘이 몹시 세지고 튼튼해져서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

진다. 차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산속에서 무술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싸리나무 열매나 뿌리 꺾질을 많이 먹었다.

싸리나무 씨와 뿌리꺾질을 먹으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져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잘 걸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심하게 부딪혀도 여간해서는 뼈를 다치지 않는다.

싸리나무 잎에는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빈산이 많이 들어 있다. 꺾질과 줄기에는 탄닌, 사포닌이 들어 있다. 싸리나무 회초리로 맞아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나오거나 멧자국이

나온다. 싸리나무 가지에 소독, 치료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출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자루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전,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